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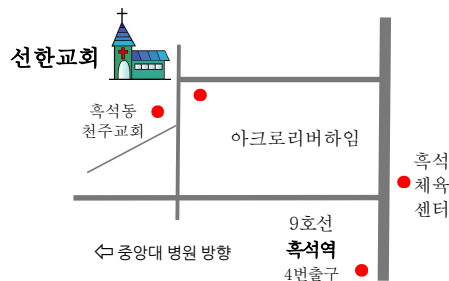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은 퇴 장 로	교육전도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박 희 태, 유 신 웅		이금춘, 김인실
관 리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조나단, 강야엘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손 석 규
편 도 선	조 계 승, 이 태 수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1장 (통일찬송가 21장)		
교 독 문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찬 양 과 경 배	321장 (통일찬송가 351장)		
기 도	박 영 근 장로		조 혜 진 청년
특 송	이 하 은 청년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28절		마태복음 5장 3절
설 교	바울의 마지막 권면 (임춘배 목사)		심령이 가난한 자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주께 피한 자들의 행복 (시16:1-11)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 영 위 원 회** 오늘 11시 예배 이후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참석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 데살로니가전서1장 ~ 히브리서 13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 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악을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주가 되도록

찬송 :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통 249)
본문 : 요한복음 1장 47~49절

말씀 :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해 주는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어요. 이스라엘은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지만 나다나엘은 그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나라가 수치스러워서 큰 나라 로마 제국을 은근히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김수영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역사를 거대한 뿌리라고 노래했어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왕국의 아합 왕은 땅을 너무 좋아해서 땅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별장 옆에 나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욕심이 나서 결국 나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죠. 아합 왕은 땅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을 사랑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재물이 아깝고, 재물을 지키자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재물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회사를 사랑한 사람도 있어요. 일본의 어떤 사람은 은행 직원인데 평생 은행 일에 헌신했대요. 집에 와서도 밤새도록 업무에 매달릴 정도로 열심을 다 했대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물러났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회사 친구밖에 없는데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친구가 없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회사만을 사랑한 사람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좋을까요. 초대교회에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롬 1:1)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고전 1:1)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 있지요. 바울은 한 마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제 목 바울의 마지막 권면 (살전5:19-28)

서 론 은혜를 사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1. 바울의 권면

- (1)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11절)
- (2) 너희를 다스리며 주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12,13절)
- (3)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오래 참으라(14절)
- (4)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15,22절)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21절)
- (5)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19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20절)

본 론

2. 교훈

- (1) 교회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 (2)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의 모양’(22절)은 무엇인가?
- (3)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해야 힘써야 할 일은?

결 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이태수 장로

매일 Q.T.		새 언약 일꾼이 감당할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날짜 : 7월 11일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본문	고린도후서3:1~11		
말씀요약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곧 바울의 편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영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칩니다..		
묵상질문 1	그리스도의 편지 3:1~6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이자 편지가 누구라고 했나요? 내 삶의 행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묵상질문 2	의의 직분 3:7~11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쁘게 감당하나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3장 3절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행 18:11). 바울의 영적 양육과 사랑의 수고로 인해 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 한 줄 새겨졌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섬김의 수고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정성껏 그리스도를 새겨 세상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의 손발이 닿는 곳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제 삶이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 사랑이 깊이 새겨지고 임하게 하소서.,제 인생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저로 인해 생명의 복음으로 쓰인 기쁨의 편지들이 이어지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찬양과 기도	사론의 꽃 예수 (새 89)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경배와 찬양)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편지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는 나와 사춘기 딸 사이의 오랜 갈등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편지를 권유해 왔습니다. 딸이나 저나 비슷한 성격이라 대화만 했다 하면 불꽃이 튀니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편지로 담아 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따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편지가 딸아이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아버지의 눈물을 쏟아 놓게 했습니다. 말로 할 때는 제가 할 말을 하느라 급해 아이의 아픈 마음이 제 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편지를 읽다 보니 비로소 아이의 마음이 제 심장에 전달된 것입니다. “아,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눈물을 담은 아빠의 편지는 또 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3년 정도 계속된 딸아이의 사춘기 방향은 그렇게 해서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 박수웅, 「우리 결혼했어요」(두란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할 때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감동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고린도후서 3:1~11	
묵상포인트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복음적 삶에 대한 사랑의 가르침과 나눔을 담았습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성장과 성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한 편지 또한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새기는 사랑의 메시지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구인가요? 바울은 그 편지를 무엇으로, 어디에 썼나요?(2~3절)	
적용하기	한 주간 나는 대화 중에서 복음을 마음 판에 새기는 대화, 영혼을 살리는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복된 직분을 제게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날짜 : 7월 15일
찬양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고린도후서 5:1~10		
말씀요약	땅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고자 함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함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1	사역 동기 5:11~15 바울이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힘을 다해 사역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사역 내용 5:16~21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다리는 둘을 하나로 이어 주지만, 담은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담이 생기면 차별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는 '불화'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적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십자가는 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화해'로 바꾼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화해'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미련한 제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게 하시니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전하게 하소서.		

매일 Q.T.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성도	날짜 : 7월 12일
찬양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본문	고린도후서 3:123~18		
말씀요약	완고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수건을 벗으라 3:11~14 바울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 썼던 수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약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묵상질문 2	주님의 영광을 보라 3:15~18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건을 벗어 버리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모든 비유와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사도들의 편지와 묵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제 마음에 덮인 무지의 수건을 걷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인격과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매일 Q.T.		질그릇에 담긴 보배, 생명을 전하는 원천	날짜 : 7월 13일
찬양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본문	고린도후서 4:1~12		
말씀요약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종 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주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묵상질문 1	보금 전도자의 자세 4:1~6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파한다고 했나요?(5절)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묵상질문 2	복음 전도자의 고난 4:7~12 하나님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에 담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지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4장 12절 죽음을 무릅쓰는 사랑과 희생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랑과 희생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순교의 피와 눈물의 시앗이 한국 교회라는 나무를 자라게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제 목숨과 유익을 구하려다 생명을 잃지만, 참된 성도는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 생명을 얻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제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음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고난 중에도 십자가와 부활 능력을 의지하여 생명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매일 Q.T.		고난 중에 묵상할 영원한 미래 영광	날짜 : 7월 14일
찬양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본문	고린도후서 4:13~18		
말씀요약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음은 겉사람은 쇠약해져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묵상질문 1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 4:13~15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한 믿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게 어떤 용기를 주나요?		
묵상질문 2	복음의 결과를 소망함 4:16~18 바울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질량과 영적 싸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을 견디고 나면 찬란하고 중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환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잠시 받는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고 힘겨워했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점점 노쇠해지는 겉사람에 집착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믿음의 확신이 입술과 손발에 담겨 환난 중에도 빛을 발하게 하소서.		